

불해의 덕

(不害의 德)

불해의 덕

> 불해의 덕이란 무엇인가?

➤ 해치지 않는 것으로 덕이 된다.

- 다른 사람이 나의 기대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 것 만이 덕(德)은 아님
➔ 그 사람이 나 혹은 우리를 해치지 않는 것(不害)만으로도 덕(德)이라고 생각해야 함

불해의 덕

> 공동체와 불해의 덕

➤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

-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 같이 하고 싶지 않고 공동체에 해가 된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사람이 있음.

→ 공동체에서 **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** 어떻게 할 것인가?

불해의 덕

> 공동체와 불해의 덕

➤ 판단의 기준이 되는 원칙과 신념 세우기

- 세상을 살다 보면 '어떤 상황에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'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김
 - ➔ 많은 법과 규칙들이 이러한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음
- 스스로 내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때는 어떠한가?
 - ➔ 자신 내부에도 **판단의 기준이 되는 원칙과 신념**이 있어야 함

불해의 덕

> 판단을 위한 원칙 세우기

➤ 사례

하루는 절에 객(客)스님 한 분이 왔습니다. 그 당시 절에 스님이 없어서 고민이었기 때문에 객스님이 와주신 것만으로도 크게 반갑고 고마웠습니다. 그런데 몇 주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. 다른 대중들과 신도들이 '새로 오신 스님이 이 절에 계시면 안 됩니다.'라며 그 객스님을 내보내야 한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.

주지스님은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두고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았습니다. 그리고 어느 정도 문제를 일으켜야 공동체에서 내보내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. 하나는 **'정신병동에 입원시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문제가 있어서 공동체에서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.'**

또 하나는 **'경찰을 부르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다.'** 가 그 기준이었습니다.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으니 마음 속에서 이 사람은 공동체에서 내쳐야 할 정도는 아직 아니라는 생각에 도달했습니다. 그래서 주지스님은 다른 대중과 신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.

"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사람이 어느 정도 됐을 때 내칠 수 있습니까? 우리들의 일이 무엇입니까? 해탈과 자비의 일입니다. **어떤 대상이 내 마음에 안 든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대상으로부터 해탈해야 되고, 그 대상이 사람일 때는 그 사람을 사랑과 자비로 안아야 되는 것입니다.**

여러분들은 이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해탈을 했습니까? 해탈할 생각들은 하고 계셨습니까? **본인의 마음을 다스릴 생각은 하지 않고 밖의 대상을 문제로 삼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?** 저 사람을 따뜻한 가슴으로, 부처님의 자비로 안을 마음을 얼마나 가져보셨습니까?

그리고는 객스님을 그냥 둔 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. 시간이 지나고 보니 별로 문제도 되지 않고 그 스님은 사찰 내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와서 일을 잘 해내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.

불해의 덕

> 판단을 위한 원칙 세우기

➤ 사례가 주는 교훈

- 다른 사람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하거나 불평불만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? 혹은 그 사람을 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?
 - ➔ 그 사람이 **나를 해치지 않는 것 만이라도 덕**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따른 **원칙을 세워야 함.**
 - ➔ 어떤 대상이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대상을 탓하기보다는 그 대상으로부터 **해탈**하고, 그를 사랑과 **자비**로 안아야 됨.

불해의 덕

> 판단을 위한 원칙 세우기

➤ 불해의 덕이라는 기준이 주는 이점

- 내 마음이 편함
➔ 바람직한 원칙과 기준이 있다면 판단을 하는데 망설이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음
- 상대방은 상처 받지 않고, 끝내는 감화될 수 있음
➔ 내 뜻과 감정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끝내는 감화가 되고 이것이 공동체의 공덕이 됨